

#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고찰

황 시 권\*

- I. 머리말
- II.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 1. 문헌분석 - 『耽羅紀年』과 『耽羅記略』
  - 2. 기능분석 - 裨補・守門將 및 救恤・防疫
  - 3. 형태분석 - 돌하르방과 돌장승 비교
- III.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 IV. 맺음말

## 국문초록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2호 돌하르방은 고유한 제주 돌문화의 상징으로서 문헌기록상 1754년 金夢燾 목사에 의해 처음 세워졌다. 조선시대 제주 3읍성 성문 앞에 모두 48기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濟州邑城 돌하르방은 24기 가운데 1기가 분실돼 현재 23기가 남아있고, 旌義縣城 12기, 大靜縣城 12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1971년 8월 26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제주읍성 동문 밖에 세워졌던 8기 중에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 옮겨진 2기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금까지 45기만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이 제작된 시기(1754)와 최초의 문헌기록(1918) 사이의 160년 넘는 큰 차이로 인해 그 신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인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와 관련한 문헌분석은 물론 기능분석과 형태분석을 다양하게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문

\* 명지대학교 미술사학박사, tamline@hanmail.net

헌고증과 함께 당대의 시대적 사회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설치동기와 목적 등의 기능성은 물론, 비슷한 시기에 먼저 제작된 육지 돌장승과의 형태를 자세히 비교분석해봄으로써, 돌하르방의 제작시기가 보다 더 명료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돌하르방, 돌장승(석장승), 옹중석, 김몽규, 김석익

## I. 머리말

제주 돌문화에는 불모의 자연과 싸움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획득하여온 제주사람의 삶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 그 본질은 삶의 치열성과 진지함, 성취된 생활양식의 질박성에 있으며, 돌같이 순박하면서도 견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1)</sup> 그러기에 청동기시대 支石墓인 고인돌과 선돌 같은 유적을 시작으로 絶海孤島 제주의 고유한 돌문화 역사는 제주사람들에게 있어 절박했던 생존의 역사라고 하는 데서 더 큰 문화적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2호 돌하르방<sup>2)</sup>은 3읍성 성문 앞에 모두 48기가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濟州邑城 돌하르방은 24기 가운데 1기가 분실돼 현재 23기가 남아있고, 旌義縣城 12기, 大靜縣城 12기가 그대로 전해오고 있다. 돌하르방의 크기는 각 성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57~238cm로 가장 크고, 정의현은 120~177cm 내외, 대정현은 108~146cm 규모로 더 작을 뿐만 아니라 형식파괴도 제일 심하다. 또한 대부분 돌하르방은 원래 세워졌던 자리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진 상태지만, 정의현성 12기는 옛 모습 거의 그대로 간직한 채 복원된 성문 앞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1971년

1)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171쪽.

2) 문화재로 지정할 때 붙여진 명칭이다. 민속학자 현용준(1963년)과 김영돈(1968년)의 현지조사에서는 ‘돌하르방’, ‘守護石’, ‘守門將’, ‘두릉머리’, ‘童子石’, ‘翁仲石’, ‘偶石木’, ‘벽수머리’, ‘돌영감’, ‘망주석’, ‘무석목’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다.

8월 26일 문화재로 지정할 당시,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1960년대 중반 제주읍성 동문 밖에 세워졌던 8기 중에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로 옮겨진 2기를 제외시킴으로써 지금까지 45기만 문화재로 지정된 상태이다.

다공질의 여러 종류 현무암<sup>3)</sup>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1754년(英祖 30) 金夢燾 목사에 의해 세워졌다는 최초 문헌기록은 心齋 金錫翼 (1885~1956)이 1918년 발간한 編年體 역사서인 『耽羅紀年』<sup>4)</sup>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754년 전후 발간된 제주관련 인문지리지인 李元鎭 목사의 『耽羅志』(1653), 朴長復 목사의 『耽羅志』(1834~36경), 李源沍 (1792~1872) 목사의 『耽羅志草本』(1843경) 등에서는 한결같이 ‘웅중석’에 관한 문헌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 돌하르방의 구체적인 제작시기가 언제인지 하는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때와 최초 문헌기록이 160년 넘는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타당성 있는 자료인지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고, 당대의 시대적 사회상황을 통해 알 수 있는 설치동기와 목적 등의 가능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엇비슷한 시기에 앞서 제작된 육지 돌장승과의 형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돌하르방에 관한 문헌기록이 보다 더 명료해질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최초의 돌하르방 문헌기록에는 제주읍성 성문 밖에 세웠다는 간단한 내용만 전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제주읍성 돌하르방을 만들어 세울 때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도 같이 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몇 가지 문헌자료와 조형분석을 통하여 이 점에 관해서도 간략히 살펴나가고자 한다.

3)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5, 39-51쪽 참조. 거의 대부분 돌하르방이 각 성문 주변에 산재한 현무암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2014년 현지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4) 1915년 저술을 끝마치고 1918년 발행한 『탐라기년』은 938년(고려 태조 21)부터 1906년(광무 10)까지 제주역사를 4권에 나눠 썼다. 고려 태조 21년 이전의 역사를 外書라 명명했고, 고종 10년 이후를 附錄이라 하여 本卷과 구별시켰다. 특히 외서라고 이름 지은 것은 그 내용에 의심되는 부분이 많아 정사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의심되는 바를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해 論贊하고 있다.

## Ⅱ.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김석익의 『탐라기년』이 출간되기 직전인 1800년대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리 중심의 인문지리서 편찬과 더불어, 지역출신의 관리나 유학자들에 의해 제주역사를 바라보고 기술하는 새로운 시도들이 펼쳐진다.

제주역사를 제일 먼저 편년체로 기술한 사람은 대정읍 신도리 출신 一齋 邊景鵬(1756~1824)으로 『耽羅事績』을 저술했다. 24세 때 향시에 합격하고 나서 1794년 38세 늦은 나이에 급제한 이후, 대정현감을 거쳐 1820년(純祖 20) 전라 만경현령에서 파직된 다음 제주로 낙향하여 쓴 것으로 보인다. 탐라국이 세워진 사실, 백제가 탐라를 친 사실, 탐라국이 신라에 항복한 사실, 탐라가 고려에 조공한 사실, 국가 간의 외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와 인물, 지리에 관련된 사적을 고려 현종 때까지 시대별로 서술하고 있다.<sup>5)</sup> 그렇지만 그 이후 조선시대의 역사가 누락되어 미완성에 그치고 있다.

특히 茶山 丁若鏞(1762~1836)의 제자 가운데 經世學에 관심을 가졌던 李綱會(1789~?)는 주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정리한 『周禮』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경세의 목적으로 『耽羅職方說』을 쓰기도 했다. 제주도의 일반적인 인문지리 현황을 담으면서도 『주례』의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한 것이 눈에 띄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목한 부분들이 많았다.<sup>6)</sup> 총 2권 1책으로 구성된 이 역사서는 제1권에서 제주의 인문·지리·경제·군사시설에 관한 총체적 보고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2권은 「相贊契始末」로서 흑산도에서 만난 제주유배인 金益剛에게 전해들은 1813년 발생한 梁濟海 관련 獄事사건의 내용과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전기를 列傳 형식으로 함께 수록하였다.<sup>7)</sup> 실제 그가 제주를 다녀간 기록이 없

5) 변경봉, 『변경봉문집』,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역, 탐라문화연구소, 2010, 24쪽.

6) 조성산, 「이강회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2008, 77쪽.

7) 이강희, 『탐라직방설』, 현행복 역, 각, 2013, 31쪽; 이강희는 전남 강진에 유배 온 다산 정약용에게 가르침을 받은 유학자로서, 1818년 흑산도의 우이도에 ‘玄洲書屋’ 연구실을 차려놓고 『탐라직방설』 등 여러 저술을 남겼다.

기에 몇몇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바른 역사인식에 근거하고자 노력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석익의 『탐라기년』(1918)에서 처음 기술된 돌하르방 즉 옹중석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영조) 30년 목사 김몽규가 성문밖에 옹중석을 세웠다.

(英祖) 三十年 牧使 金夢奎 設翁仲石於城門外.

(영조) 31년 (...) 목사 홍태두가 문묘가 비습한 곳에 있다 하여 향교를 광양에 옮겨 세우니 이는 전 목사 김몽규의 의논에 좇음이었다.<sup>8)</sup>

三一年 (...) 牧使 洪泰斗 以文廟卑濕 移建鄉校于廣壤 踵前牧使 金夢奎議也.(文廟在鄉校內)

실제 김몽규 목사는 1752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부임하였다. 김석익이 쓴 『耽羅觀風案』에서는 그의 업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1752년 12월 도입해 성문밖에 옹중석을 세우고 운주당과 관덕정을 중수하였다. 1754년 10월 임금님 탄생일에 祝壽하는 글이 미급하여 순영의 장계를 받고 파직되었다.<sup>9)</sup>

壬申十二月到任 設城門外翁仲石修運籌堂觀德亭 甲戌十月以誕日箋文未及 陳賀自巡營啓罷.

8) 『탐라문헌집』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413쪽; 한자 원문은 1990년 杏文會 중심으로 제주문화사에서 발간한 『심재집』 향토자료총서 2권을 인용하였다. 앞서의 교육자료에는 목사 金夢奎의 불꽃 ‘奎’자가 별이름 ‘奎’자로 모두 잘못 誤記되어 있는데, 『탐라기년』 원문에는 위의 인용문과 같이 앞부분에만 틀려 있다. 김몽규 목사가 직접 남긴 방선문의 마애명이나 1759년(英祖 35) 4월 세워진 제주향교의 선정비인 ‘牧使金公夢奎尊聖待士碑’에는 ‘奎’자로 되어 있으며, 1843년경 발간된 이원조 목사의 『탐라지초본』에도 마찬가지로 ‘奎’자로 표기되고 있다.

9)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265쪽; 이 책에는 『탐라관풍안』 원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림 1〉 제주시 방선문의 영주목사 김몽규 마애명, 1754년, 탁본, 제주동양문화연구소 소장(왼쪽). 목사 김몽규 존성대사비, 1759년, 제주시 용담동 제주향교 내(오른쪽)

이러한 문헌기록으로 보아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웅중석’이라 하여 김몽규 목사가 1754년 세웠음을 알 수 있으며, 지금도 그가 남긴 마애명이나 그를 기리는 선정비가 전해온다<그림 1>. 이 웅중석 명칭은 1931년 편찬된 李膺鎬(1871~?)의 『毛羅國書』에는 ‘웅중’이라 하여 삼성혈에 옮겨진 4기 돌하르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10)</sup> 이후로도 金斗奉이 저술한 『耽羅誌』(1933) 및 『濟州島實記』(1936), 그리고 1954년 간행된 淡水契 편 『增補耽羅誌』에서는 김석익의 저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기고 있다. 특히 김두봉의 『탐라지』는 김석익의 아들인 김계연 선생이 국립제주박물관에 기증한 것으로서, 김계연 선생 기증유물특별전 도록인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에서 1835년 전후 출간된 박장복 목사의 『탐라지』와 함께 『탐라지-목관편』이란 명칭으로 잘못 소개하고 있다.<sup>11)</sup>

10) 我石 이응호는 1891년(高宗 28) 칠봉서당을 창설한 橘堂 李基璠의 아들이다. 부친에 이어서 文淵서당을 개설하여 많은 제자를 길러냈는데, 심재 김석익이 그에게 글을 배웠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11)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25쪽; 이 자료에는 김두봉의 『탐라지』를 『탐라지-牧官篇』이란 제명으로 1912년경 金鐘鉉이 편집하여 김두봉이 간행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담당 학예연구사는 이 책이 1834년부터 약 2년간 부임한 박장복 목사의 『탐라지』를 필사한 것이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1954)에서는 김석익의 저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2)</sup> 다음은 첫 번째 지리 편의 名所古跡과 마지막 관풍안에서의 웅중석과 김몽규 목사에 대한 기록으로, 김석익의 『탐라기년』에서 발견되는 김몽규 목사의 마지막 이름을 똑같이 잘못 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翁仲石：濟州邑城 東西南 三門 外에 在하였고, 4087年 甲戌 英祖 三十年에 牧使 金夢奎가 創建한 바인데 三門 毀撤로 因하여 二座는 觀德亭 前, 二座는 三姓祠 入口에 移置되었다. (85쪽)

防禦使 金夢奎：英祖 二十八年 壬申 十二月 到任하고 越 二年 甲戌 十月에 誕日에 箋文陳賀 未及事로 因하여 巡營으로부터 狀罷하다. 翁仲石을 三門城外에 建하고 運籌堂과 觀德亭을 重創하다. 立碑. (457쪽)

따라서 김석익의 『탐라기년』이 출간된 이래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까지 간행된 제주관련 모든 인문지리서에는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1754년 김몽규 목사에 의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定說化 시켜서, 이 기록을 바탕으로 약간 구체화하여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 및 『承政院日記』 등의 문헌기록에 의하면 김몽규 목사는 1727년(영조 3) 무관직인 宣傳官부터 시작, 1730년 訓練院主簿・訓練判官・都總都事를 거쳐 평안도 博川郡守에 제수되었다. 1732년 포도청의 우청인 右邊捕盜從事官과 副司果를 지낸 후 1733년 海南縣監이

라 했으나, 본 연구자가 유물열람을 통해 직접 확인한 바로는 다르게 판명되었다. 즉 박장복 목사의 책에는 ‘선생안’이 아주 간략하며 김몽규 목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반하여, 『탐라지-목관편』에는 김몽규 목사에 대해 ‘壬申十二月 到任 新設城門外翁仲石修運籌堂 甲戌十月以誕日撰文未及 陳賀事自巡營狀罷’이라 하여 김석익의 『탐라기년』 내용을 거의 베껴 쓰고 있다. 판권에는 1933년(昭和 8) 3월초 金洪範이 인쇄하고 김두봉이 편집・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국립제주박물관의 특별전 자료에는 출간연도나 편집인이 전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 12) 담수계의 『증보탐라지』는 당시 김문희, 김범준, 김경중, 김석우 등 제주석학 12명이 결성한 계모임 ‘담수계’에서 1953년 5월 집필을 끝내고 1954년 9월 발간한 제주 인문지리서이다. 처음에는 인쇄 활자체가 아닌 필사본으로 제작되었다. 인용출처는 2004년 제주문화원에서 발행한 영인본이다.

되었으며, 1734년 訓練正으로 승진하여 평북의 鐵山府使, 1735년 자강도 북서부의 滿浦僉使를 지냈다. 1736년에 東伍軍의 최상부 단위인 忠原營將을 제수받고 종4품 무관직인 副護軍이 되었다. 이어 1738년 함북 북서쪽의 茂山府使, 1740년 궁중을 지키고 임금을 호위하는 羽林衛의 羽林將으로 정3품의 무관직을 제수받고 武臣副護軍이 되었다. 같은 해에 무관들에게 高選으로 추앙받는 국왕 직속의 內乘과 禁軍將에 올랐다. 1742년 자강도 중서부 압록강 연안의 渭源郡守로 발령받고 付副護軍을 겸직하였다. 1744년 평북 초산군의 理山府使, 1747년 慶尙左水使를 거친 후 1748년부터 1751년까지 경기도 해안방어를 담당하는 南陽府使로 영전되었다. 뒤이어 1752년부터 1754년까지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후, 1758년에는 武臣으로 궁궐에서 임금을 모시고 열린 經筵에 참여했다.<sup>13)</sup>

그러나 이 행사를 끝으로 그에 대한 문헌상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헌에는 1723년(경종 3) 무과 別試인 丙科에 합격한 金夢燿가 있다. 그가 제주목사 김몽규가 맞다면 1693년(숙종 19) 태어난 癸酉生으로 이때 나이 이미 31세여서 1758년이면 66세가 되기에, 제주목사 김몽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sup>14)</sup>

‘石翁仲’이라고도 불리는 ‘옹중석’의 명칭은 대개 고대 제왕이나 대신의 능묘 앞에 세운 석인상을 말한다.<sup>15)</sup> ‘옹중’의 유래는 중국 진시황 시대 南海의 거인 ‘阮翁仲’을 일컫는다. 신장 1장3척에 기질이 용맹하여 臨兆를 굳게 지켜 명성을 떨쳤다. 흉노족을 벌벌 떨게 했던 그가 죽자 구리쇠로 동상을 만들어 함양궁 사마문 밖에 세웠다. 구리나 돌로 만든 偶像을 일컫는 말로 쓰인 옹중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승의 뜻도 있다.<sup>16)</sup> 이러한 옹중에 관한 이야기는 중국의 신화전설에도 나오며,<sup>17)</sup> 베

13)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8-9쪽.

14)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 출전: 『上之三年癸卯討逆庭試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5)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공원, 2007, 40쪽.

16) 황충기,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2002, 567쪽.



트남의 신화와 전설에서도 李翁仲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sup>18)</sup> 우리나라의 경우 『승정원일기』와 정약용의 『詩文集』 등 여러 문헌에 나오는데, 성문 앞이나 높은 인물 무덤 앞의 석상, 돌장승을 일컬어 옹중이라 부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9)</sup>

## 1. 문헌분석-『耽羅紀年』과 『耽羅記略』

그렇다면 『탐라기년』 <그림 2>에서 김석익이 어떠한 근거를 바탕으로 옹중석 즉 돌하르방이 1754년 김몽규 목사의 지시로 세워졌음을 기록했는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문헌에 따르면 실제로 김목사가 1753년 성곽방어집무실인 運籌堂과 군사훈련시설인 觀德亭<sup>20)</sup>을 중창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牧民官으로서 제주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업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을 백성들인 民의 소원하는 바를 스스로 알아차려 官이 이를 적극 수용한 결과<sup>21)</sup>, 돌하르방 제작이 이뤄졌다고 어렵지 않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그가 재임했던 2년여 동안 백성들이 바라던 향교이설 계획을 미리

17) 위엔커[袁珂], 『중국신화전설 2』,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9, 350-352쪽.

18) 무경(武瓊),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역, 돌베개, 2000, 57-59쪽; 이 책의 본이름은 『嶺南撫怪列傳』이다. 베트남의 慈廉懸 출신으로 본명은 李身이며, 키가 2장3척으로 장대할 뿐만 아니라 날래고 사나웠다. 安陽王 때에 진시황이 침략하려 들자 이신을 바쳤으며, 진시황은 그를 무관으로 임명하고 천하를 통일한 후 임조를 지키게 했다고 전해온다. 이익의 『星湖雜說』 20권의 내용도 이와 비슷하다.

19) 정승모, 앞의 책, 2007, 40-45쪽 참조.

20) 1448년(世宗 30) 제주목사 辛淑晴이 군사훈련청으로 창건했다. 제주관아 중에 가장 규모가 크며, 원래 3칸으로 이후 여러 차례 중수와 개축 과정을 거쳤다. 1480년(성종 11) 梁讚 목사, 1559년(명종 14) 이영 목사, 1690년(숙종 16) 李宇恒 목사, 1753년(영조 29) 김몽규 목사, 1778년(정조 2) 黃最彦 목사, 1833년(순조 33) 한응환 목사, 1851년(철종 2) 李玄功 목사 때에 중수되었다. 그리고 1882년(고종 19) 박선양 목사가 관덕정을 너비 13칸, 가로 10칸, 높이 5칸으로 중건하였다(『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참조).

21) 유흥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 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248쪽.



〈그림 2〉 김석익, 『탐라기년』, 1918년, 국립제주 박물관 소장

마련해 후임목사가 바로 실행하게 만들어줌으로써, 훗날 그의 이러한 선정을 기리는 공덕비까지 제주 유림들에 의해 세워지게 된다. 이로 보아 김몽규 목사는 부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제주사람들의 안전한 삶과 양질의 교육을 위해 힘썼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미루어볼 때 제주역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술하고자 했던 심재 김석익에게 있어, 김몽규 목사의 행적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심재는 구한말부터 6·25 동란 이후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온 뛰어난 향토사학자이자 저술가로서 한학자, 서당교육자, 서예가로도 이름을 날렸다. 조선중기 제주교육에 많은 영향을 끼친 明道菴 金晉鎔(1605~1663)의 후손이며, 1909년 제주의병장으로 활동했던 金錫允의 아우이다. 이 『탐라기년』 이외에도 『耽羅人物考』, 『耽羅觀風案』, 『耽羅賓興錄』, 『破閑錄』, 『海上逸史』 같은 역사저술과 함께 『槿域詩話』, 『槿域書壇名家抄』, 『儒理漫筆』, 『雜全散異』 등의 저서를 방대하게 남겼다.<sup>22)</sup>

특히 김석익의 『탐라기년』 서문을 쓰면서 浮海 安秉宅(1861~1936)이 밝힌 제주관련 문헌과 인문지리서 가운데 새롭게 눈에 띄는 것은 玄德 聞(1817~1869)이 저술한 『耽羅記略』이다. 안병택은 이 책에 대해 邑誌 體를 탈피하여 史家 나름으로 거의 완성시켰으나 자료부족과 문장의 매끄럽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김석익 또한 외서 편에서 현덕문의 『탐라기략』 가운데 삼국시대 조공관련 한 부분과 관련해 논하고 있다.<sup>23)</sup> 김석익의 또 다른 저서인 『파한록』 상권에서는 늦게 태어나서 현덕문의 저서 전부를 보지는 못했으나, 그의 『기략』 한권을 보전대 거칠어 세련되지 못했으니 전서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옛것을 좋아하고 널리 전문을 익혀 펴낸 그의 방대한 저술활동은 제주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할 만하다며 칭송하고 있다.<sup>24)</sup> 더불어 김석익의 『탐라인물고』에서는 『四禮集說』, 『儒家選文』, 『탐라기략』 등의 저술 35권이 그의 집에 소장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5)</sup>

그러기에 이 『탐라기략』을 쓴 현덕문의 생애와 저술활동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면, 김석익이 자신의 저서에서 맨 처음 언급한 ‘웅중석’ 관련 부분은 현덕문의 저술 내용에 바탕을 두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근거의 하나로서 그 스스로 현덕문의 『탐라기략』을 읽은 소감을 직접 논평하고 있고, 현덕문의 출생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어서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거쳐 올라가면 돌하르방이 만들어진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직간접으로 전해들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月谷 현덕문은 제주도에 거주해온 연주현씨의 뛰어난 인물 가운데

22) 김동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125-127쪽.

23) 『탐라문헌집』, 앞의 책, 1976, 338쪽, 347쪽; 서문을 쓴 부해 안병택은 제주 조천리에서 태어난 인물로 젊어서 전라남도 장성으로 이주했다. 당시 호남 성리학의 대학자 蘆沙 奇正鎭과 그의 손자 松沙 奇宇萬에게 학문을 배워 전라도와 제주도에 많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그의 사후 제자들이 모아서 만든 글 모음집 『浮海漫稿』가 남아 있다(2018.4.12.일자 국립제주박물관 보도자료).

24) 김석익, 『濟州속의 耽羅-심재집』, 오문복 외 역, 도서출판 보고사, 2011, 63쪽.

25) 김석익, 앞의 책, 2011, 164쪽.

하나로 손꼽힌다. 세칭 월곡 선생으로 추앙되는 그는 현재 제주시 노형동인 月郎村 태생으로 일찍이 굴림서원에서 수학했다. 그는 줄곧 학문을 연마하여 聖人の 행실을 본받고 배워서 후진을 가르쳤으며, 예가 제서를 모아 『사례집설』을 저술하였다. 이어서 그는 『탐라기략』과 『華東雜誌』를 펴냈고, 1857년 제주 판관 洪敬燮의 명으로 『橘林院誌』를 수정 편찬하였다. 또한 현덕문은 『유가선문』 28권을 완성하였는데 이 책에는 『孔子年譜』로부터 기타 事跡, 우리나라 신라·고려·조선에 걸친 儒賢들의 사적은 물론 詩律·書文·雜著 등이 광범위하게 정선 수록되었다.<sup>26)</sup>

이러한 현덕문의 학식과 덕망은 널리 호남유림까지 알려지게 되었지만 그에게 관운은 별로 없었다. 두 번이나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응시했으나 낙방의 고배를 마신 이후 더는 벼슬자리에 뜻을 두지 않았다. 특히 현덕문이 완성한 28권의 『유가선문』은 제주목사 李後善과 趙義純이 서문을 썼는데, 두 사람은 한결같이 박식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다. 『全南儒林薦』에는 “濟州郡의 현덕문은 총명하고 민첩하며 순수하고 실질적이다. 스승을 존경하고 친족을 사랑하며 타고난 성실과 힘을 다해 학업에 힘썼다.” 라면서 그를 찬양하고 있다.<sup>27)</sup>

맨 먼저 월곡 현덕문의 구체적인 생애와 『탐라기략』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족보를 찾았다.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를 통하여 확보한 『延州玄氏世譜』 <그림 3> 내용을 살펴보면, 현덕문의 출생 연도와 업적은 물론 바로 윗대 조상들의 생몰 연대와 활동상황도 보다 구체적

26)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延州』 제2호, 1986, 88-89쪽; 제주판관 洪경섭을 通判 洪敬愛로 잘못 표기하고 洪경섭의 명에 의해 편찬한 것을 그에게 의심나는 부분을 물어 보완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화동雜誌』를 『화동雜記』로 잘못 쓰고 있다.

27)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앞의 책, 1986, 89쪽; 원래 글에는 『유가선문』의 서문을 쓴 제주목사 이후선과 조희순 이름을 李俊善과 趙義經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 이후선의 경우는 『승정원일기』 고종 무진(1868 동지) 2월 18일자 같은날 앞글에서는 李俊善으로, 뒷글에서는 李後善으로 기록하였는데, 『各司謄錄』이나 『響山集』 기록에 따르면 이후선이 맞는 표기임이 확인된다. 또한 족보기록에는 이후선은 맞게 쓰고 있지만 조희순은 趙義純으로 틀리게 썼다. 『향산집』은 조선말 경상북도 안동출신 문신 李晚燾(1842~1910)의 문집이다.

〈그림 3〉『연주현씨세보』, 2000년 경진보, 현덕문의 가계도

으로 기록되고 있다.<sup>28)</sup> 이 족보에 의하면 월곡의 증조부는 玄光輔 (1739~1826)로 留郷座首와 향교훈장을 역임한 것을 알 수 있다.<sup>29)</sup>

마을의 有志이자 유학자인 증조할아버지 현광보는 己未生으로 돌하르방이 제작되기 훨씬 이전인 1739년 태어났으며, 87세까지 천수를 누리고 乙酉年(1826) 말에 타계하였다. 증손자 현덕문이 1817년 태어난 것을 감안할 때 그는 무려 10년이나 증손자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문헌상 돌하르방이 제작된 1754년에는 그의 나이 15세로 혈기왕성

28) 『延州玄氏世譜』 2000년 庚辰譜 상권,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2001, 354쪽, 365쪽 참조.

29) 위 족보에서 증조부 현광보의 업적에는 ‘壬寅與權義震應尋末尤庵謫廬建碑遺墟伋揭板事見耽羅地誌라 기록돼 있으며, 조부인 玄鶴老(1760~1836)의 업적으로는 ‘英祖乙巳贊三乙那祠宣額記見耽羅遺事라 적혀 있다. 월곡의 부친 또한 유림 교장을 지낸 것으로 보아 전통적인 유림집안으로서 증조부는 『탐라지』, 조부 현학로는 『탐라유사』 편찬에 관계했고, 증손자 현덕문이 『탐라기략』을 저술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사람들이 직접 기록한 역사서로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할 것이다. 현덕문의 업적으로는 ‘好學篤行搜集有儒家選文二十八卷州牧李後善趙義純並作序文函稱傳雅又有耽羅記略橋林院誌四禮集說華東雜誌等合四冊著述爲南州儒宗事見三綱需行篇及湖誌輿覽이라 쓰여 있다.



한 청년이었던 것이다.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를 수소문하여 현덕문의 후손인 玄昌翊(1956~)씨를 만나 『탐라기략』을 소장하고 있는지 확인했다.<sup>30)</sup> 현창익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가 큰택으로 매년 가서 책 말리는 걸 보았다고 한다. 왜냐하면 제주도의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장마철이 지나 책을 말려두지 않으면 고서들이 엉켜 붙어버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이번 연구조사에서는 『탐라기략』의 존재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친족 간에 추가로 확인해봤지만 장손집의 대가 끊기면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나마 보관되어온 고서들도 많이 못쓰게 되고 잃어버리기도 했다는 것이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수확은, 만약 현덕문이 『탐라기략』 속에 돌하르방에 관해 기록을 남겼다면, 이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충분한 고증을 바탕으로 한 史實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증조부인 현광보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현덕문은 지나다니면서 눈에 띄는 돌하르방에 큰 관심이 갔을 터이고, 그에 대한 확인과정에서 돌하르방이 실제 만들어지기 전부터 살았던 증조할아버지의 생생한 체험담을 전설처럼 직접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앞으로도 현덕문의 후손들 주변이나 그가 교류했던 호남유림의 후손 가운데 혹시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문헌 찾는 노력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 2. 기능분석-裨補・守門將 및 救恤・防疫

돌하르방의 제작시기를 파악함에 있어 문헌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제작 목적과 쓰임새 고찰을 통한 기능분석이라고 하겠다. 이를

30) 방문인터뷰, 2013년 10월 7일. 이후 2회에 걸쳐 추가 전화면접을 통해 친족 간에 『탐라기략』 소장유무를 확인했으나, 책을 보관하고 있는 후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 4〉 인도네시아 발리 베사키 사원의 석상, 높이 20~70cm, 김병모 촬영(왼쪽·가운데) 인도네시아 문쿠위누아의 석상, 높이 153cm, 술라웨시섬, 가종수 촬영(오른쪽)

근거로 하여 돌하르방의 연원을 살펴본다면 보다 명확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제주 돌하르방에 대한 확실적인 문헌기록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 연원에 대한 여러 학설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돌하르방의 혈연관계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석상과 맺어져야 옳으냐는 논란거리인 셈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있는 베사키사원의 석상들이 돌하르방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보다는 몽골의 석상 ‘훈출로’와 더 닮았다고 반박하는 학자들의 대립각이 심했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 물을 오가며 비슷한 시기에 성행한 육지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거나, 일부의 기단부에 정낭홈이 파인 것을 강조하면서 독자적인 제주자생설을 외치는 학자들도 생겨났다.

전자의 경우는 거시적인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주장한 것으로서, 1980년대 초 인도네시아 발리 석상에 근거한 ‘남방기원설’은 김병모 이외에 재일교포 학자 가종수가 2010년 이후 새롭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것은 해류 방향과 문화전파 방향이 일치한다는데 근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문화교류라든가 석상의 조형적 비교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그림 4>.<sup>31)</sup>

반면, 몽골 동남쪽 다리강가지역 석상의 영향을 받았다는 북방기원설은 1990년대 이후 몽골과 정식 수교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이는 13~14세기 고려와 몽골의 복속관계 속에서 100년 가까이 국영목마장을 제주에 두고 파견된 몽골 관리자들이 직접 운영했는데, 제주 돌하르방은 이들이 오래 거주하며 남긴 많은 몽골풍습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주채혁, 최서면, 최기호, 조오순 등 한국몽골학회(일명 한국몽골秘史연구회) 학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박원길, 정성권이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몽골 석인상들은 실존했던 인물들을 본떠 만든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위아래 全身의 사실적 묘사, 등 받침대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좌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석인상에 묘사된 의상·변발·무기·장식물류는 13~14세기 몽골인이 지니던 것으로, 오른 손에는 거의 식기를 들고 있다. 남성상 이외에 여성을 묘사한 석인상이나 당시 유행하던 모자를 쓴 형태도 있다. 대부분 의복을 착용하고 있지만 벌거벗은 나체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많은데, 남성 성기를 하체에 조각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그림 5>.<sup>32)</sup>

북방기원설은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학자들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데, 조선무속을 연구한 아키바 다카시[秋葉隆](1886~1960)가 선구자라 할 것이다.<sup>33)</sup> 이외에도 무라이마 지준[村山智順],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등이 가세하고 있는데, 이들은 돌하르방을 石武人으로 색다르게 표기하고 있다.<sup>34)</sup>

31)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54-56쪽;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 여행 1』, 고래실, 2006; 가중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 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코리아, 2011 참조하였다.

32) 데 바이에르, 『몽골 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혜안, 1994, 38-43쪽.

33) 이카마쓰 지조[赤松智城]·아키바 다카시[秋葉隆], 『조선무속의 연구』,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34)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106-107쪽.





〈그림 5〉 동몽골 다리강가 지역 훈출로들. 허르긴현디의 석상, 장장식 촬영(왼쪽) 알탄오보의 석상(가운데) 및 람트의 석상(오른쪽), 『몽골 석인상의 연구』 도판

#### 1) 전래신앙적 요소—裨補・守門將

이에 반해서 토속적인 민속학적 관점에서 육지전래설과 제주자생설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오랜 기간 장승을 연구해온 이종철은 기능면에 있어서 훈출로와 돌하르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제주의 돌하르방은 성문을 수호하는 지킴이의 특징이 도드라지는 데 비해, 몽골 석인상은 위대한 조상에 대한 기념물로서 무덤유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마을과 무덤은 공간이미지가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그곳에 존재하는 석상 또한 기능이 전혀 별개이기 때문이다.<sup>35)</sup> 김유정의 경우도 두 지역의 석인상이 형태나 분위기가 유사하다고 하여 돌하르방의 기원이 되지 못하는 것은, 조형미술품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기능과 형태의 유사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석공의 표현기술이 떨어질수록 인체 형상을 새기는 표현력의 수준 또한 낙후되어 인종이나 문화적인 차이를 떠나서 엇비슷해지기 때문이다.<sup>36)</sup>

35) 이종철, 『한국의 장승』, 민속원, 2009, 179쪽.

36)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耽羅文化』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219-220쪽.

육지전래설을 대표하는 석상으로는 호남지방을 중심으로 널리 분포된 돌장승을 들 수 있다.<sup>37)</sup> 돌하르방이 장승의 한 갈래라고 하는 육지 전래설은 초기부터 주장한 제주 민속학자 김영돈 외에 김두하, 정승모, 주강현 등 민속학 연구자 중심이다. 도내미술가 문기선, 양용방 이외 김유정, 김정선 등 소장학자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원래 장승의 명칭은 ‘長柱’에서 비롯되었는데, ‘柱’ 자는 한자어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造語이다. 이 글자는 ‘기억할 것’을 적어 붙이는 木札, 紙札이나 占卜에 쓰는 점대로 쓰이다가,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장생의 의미를 바꾸기 위하여 찾던 가운데 우리나라만 쓰는 새로운 한 자어가 만들어진 것이다.<sup>38)</sup>

장승은 불교적인 범수와 더불어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 최전성기를 맞이했다. 국가도로 즉 官道인 管路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는 路標장생은 물론, 읍락·성문·마을·사찰에 각각 읍락비보, 성문수호, 경계표, 佛法수호 등의 장생까지 합쳐져서 그야말로 발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였다<그림 6>. 민속학자 주강현은 정의현에서 돌하르방을 ‘벽수머리’라 부르는 것에 주목하고, 돌하르방과 육지 벽수와와의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sup>3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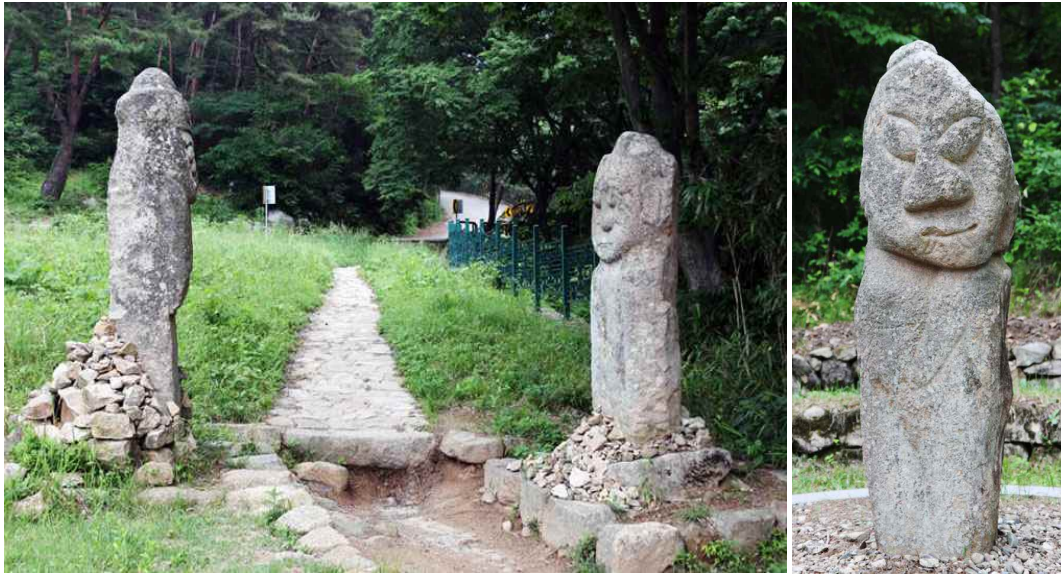
특히 이 가운데 장승의 기능에는 防疫도 있는데 疫神을 쫓아내는 풍습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삼국유사』 권 2 「處容郎望海寺」조에는 처용과 역신 이야기가 나오며, 鄉歌인 「處容歌」로 아직도 전해오고 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처용의 모습을 그려서 문 앞에 붙이고 역신을 쫓았으며, 이러한 처용놀이는 불교와 습합된 세시풍속의 ‘제웅’ 팔기로 바뀌어 전래해왔던 것이다.<sup>40)</sup> 처용의 逐神은 춤

37)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공식명칭은 ‘石長柱’이다. 연구주제인 ‘돌하르방’ 용어에 걸맞게 이 논문에서는 ‘석장승’을 ‘돌장승’으로 통일시켜 표기하기로 하였다. 원래 ‘중요민속자료’라는 명칭이었으나 2017년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38) 김두하, 『장승과 벽수』, 대원사, 2011, 46쪽.

39)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162-163쪽.

40)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128-130쪽; 제웅이란 벼짚으로 만든 인형으로 음력 정월 14일 밤에 집밖으로 던져서 판다. 이때 머리에다 동전을 넣거나 배부위에 종이돈을 넣어두면, 동네아이들이 이를 꺼내서 놀이 돈으로



〈그림 6〉 경남 창원 관룡사 돌장승(좌), 높이 216cm(왼쪽), 높이 220cm(오른쪽), 경북 상주 남장사 돌장승(우), 높이 186cm.

에도 등장하는데 해마다 그믐에는 대궐마당에서 여러 가지 탈을 쓰고 궁중 정악과 불교음악 영산회상의 연주 속에 처용무를 추며 악귀를 내쫓았다.<sup>41)</sup>

장승은 솟대신앙과 더불어 마을의 수호신 가운데서 下位神으로 신앙된다. 우리나라 중부지역에는 나무장승이 많고 남부지역에는 돌장승이 많은 편이며, 마을로 들어오는 잡귀·질병·재앙을 막기 위해서 마을제 형식의 장승제를 지낸다.<sup>42)</sup>

쓴다. 제용팔기 풍속은 처용의 관용과 불보살의 加持力을 이용하여 한해의 안녕을 축원하고 악귀를 쫓자는 데 의의가 있다.

41)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는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동해 용왕의 아들인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疫神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취서 전염병을 옮기려던 귀신을 물리쳤다는 설화가 바탕이다. 이 춤은 5명이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향을 상징하는 파란색(동), 흰색(서), 붉은색(남), 검은색(북), 노란색(중앙) 옷을 입고 춘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통일신라에서 고려후기까지는 한 사람이 춤을 추었다.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에 이르러 지금과 같은 다섯 사람으로 구성되었고, 성종(재위 1469~1494) 때는 더욱 발전시켜 궁중의식에 사용하였다. 문화재청 사이트(<http://www.cha.go.kr>), 우리지역문화재 항목 참조.





42)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210-211쪽.

천대받던 기층 문화권의 마음을 투영한 육지부 돌장승은 호남지방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작시기 또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제주 돌하르방이 제작된 1754년을 전후로 하여서는 가장 뛰어난 돌장승이 세워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북의 부안 동문안·서문안 당산 돌장승(1689), 전남 나주 운흥사 돌장승(1719) 및 불회사 돌장승, 전북 남원 실상사 돌장승(1725), 전북 남원 서천리 돌장승, 전북 순창 충신리·남계리 돌장승, 전남 여수 연등동 벽수(1778) 등이 있다. 이와 달리 경남 통영시 문화동 벽수(1906)는 형태와 표정 모두 괴기스럽고 한층 과장시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돌장승의 공통점은 마을이나 사찰 또는 성문을 수호하는 수문장으로서 裨補적인 기능은 물론, 마을안녕을 담보하는 防戩적인 성격도 지닌다는 점이다.<sup>43)</sup> 이에 비춰볼 때 제주 돌하르방의 제작목적과 기능 또한 성곽을 지키고 백성의 安慰를 살피고자 했다는 점에서 돌장승과 그 역할과 성격이 같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 제주자생설은 1963년 맨 처음 돌하르방을 현지 조사한 제주민속학자 현용준을 필두로 제주민속박물관장 진성기 등에 의해 논의되었다. 도내 향토사가인 홍순만 역시 돌하르방의 외지유래론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현용준 견해로는 성을 쌓은 무렵에는 제주 가옥의 유다른 풍습에 따라 대문을 대신하는 ‘정낭’을 걸쳐서 성문을 대신했으리라 보고 있는데, 이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기단석의 홈 구조 때문이다<그림 7>.

실제 돌하르방이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역할을 맡았다면, 행정구역이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 3개로 나뉘지던 때가 1416년(태종 16)으로 얼마 없어 성을 쌓았기에, 1754년 와서 비로소 돌하르방을 세웠다는 것은 수백 년 동안의 물리적 공백을 어떻게든 메꾸어 설명해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몇몇 기단석에는  및  형태 구멍이나  및  형태의 홈이 파여 있으며, 바로 이것이 ‘정낭’을 걸쳤던 시설

43)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221쪽.





〈그림 7〉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돌하르방 기단 홈 형태, 경복궁 경내, 서쪽과 동쪽(우). 이곳 2기는 아직 문화재 지정이 안되었다.

이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다시 말해 성문 양쪽 모퉁이에다 돌하르방이 세워지기 전에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정주목’을 세우고 ‘정낭’을 걸쳤던 시설이 우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인 것이다. 특히 정낭은 ‘정주목’이라 하여 무속신앙과 결부된 聖物로서 제주에선 매우 신성시하여 왔다. 따라서 원래는 성문을 대신해 단순히 ‘정낭’을 걸친 시설만 되어 있었다가, 성문이 만들어지고 돌하르방이 세워지면서 그 기능이 남겨져 기단석에다 앞서와 같은 형태의 홈을 파서 ‘정낭’을 걸쳤으리라 보고 있다.<sup>44)</sup>

하지만 이런 주장은 3읍성 전체 돌하르방 기단석에 정낭 홈이 파여 있지 않고, 제주읍성 돌하르방 가운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입구 2기, 제주대박물관 맨 앞 2기,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입구 1기, 제주목관아 1기 등에서만 정낭 홈이 남아있는 관계로 논리적 타당성이 그리 높

44)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261-262쪽.

지 못하다. 이런 까닭에 제주 자생설을 편 연구자들 또한 결국 육지전래설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앞서와 같이 제주 돌하르방의 연원과 기능에 관해 살펴본 바 육지전래설 즉 돌장승의 영향을 받아서 돌하르방을 제작했을 것이라는 추론이야말로 매우 합리적이라는 사실을 고찰할 수 있다.

## 2) 사회적 상황-救恤・防役

이에 덧붙여서, 돌하르방이 제작될 당시 제주의 사회적 상황을 고찰해봄으로써 돌하르방의 제작 동기나 이유가 훨씬 명료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예로부터 제주는 아주 맑은 날이면 남해안일대 높은 산봉우리와 전망 좋은 섬에서 우뚝 솟은 한라산이 바라보일 정도였지만, 제주해협의 협막스런 파도는 육지와 왕래를 더 어렵게 만들어 절해고도의 서러움을 안겨주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빠르면 운 좋게 하루정도면 제주섬 북쪽해안가 포구에 닻을 내릴 수 있었으나, 몹시 거친 계절을 만나면 한 달 넘게 남해안일대 해남, 강진의 여느 포구에서 하염없이 죽치고 기다려야만 했다.<sup>45)</sup>

특히 김몽규 목사가 돌하르방을 세웠다는 기록보다 20여년 앞서서 쓴 鄭運經(1699~1753)의 『耽羅見聞錄』을 보면 그 당시 제주사람들의 생활상과 문화수준을 아주 상세하게 알 수 있다. 그는 1731년 9월 부친인 목사 鄭必寧(1677~1753)을 따라 제주에 건너와 같이 머물며, 낮 설고 물선 척박한 섬땅의 문화와 생활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놓았기 때문이다.<sup>46)</sup>

45) 이익태, 『知瀛錄』,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30쪽; 1694년(숙종 20) 5월 제주목사로 부임한 治溪 李益泰(1633~1704)가 물러나던 해인 1696년 늦봄에 쓴 『지영록』에는 한양에서 출발해 제주 화북포구로 들어오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다. 그는 해남 대둔산의 白雲臺 上峰에서는 한라산을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올라갔으나, 심한 바다안개 때문에 실패한 경험담도 적고 있다.

46) 정운경, 『탐라전문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서설

한라산에서 바다에 이르기까지 몇 자 아래는 모두 돌이다. 그래서 흙의 성질이 쉬 흠어져 힘이 없다. 밭을 가는 자가 씨를 뿌리고 나면 바로 소나 말을 몰아 밟아준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가서 남는 것이 없다. 또한 열흘만 가물면 반드시 거북등처럼 갈라진다. 비가 조금만 내리면 아래로 씻겨 내려가 싹을 다치게 한다. 그래서 해마다 기근이 들어 백성 먹이가 극히 어렵다. 육지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을 2~3일에 나누어 먹는다. 부역에 기꺼이 응하지만 크게 힘을 쓰지 못한다. 땅에 맞는 곡식이라고는 조와 보리와 메밀 등 몇 종류뿐이다.<sup>47)</sup>

또한 김몽규 목사 보다 조금 앞선 1749년(영조 25) 63세 때 제주목사로 부임한 鄭彦儒(1687~1764)는 첫해 여름에 대풍이 불어 飢民이 속출하자 조정에 救護粟을 요청하여 賑給에 앞장섰다. 구휼에 매달리며 그가 쓴 120句 가사체 『耽羅別曲』에는 그 당시 제주민의 몹시 힘든 생활상을 매우 잘 그려내고 있다[표1].<sup>48)</sup> 원활한 구휼활동은 제주목사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였다.

1721년(景宗 1) 문과에 급제한 정언유는 중앙의 여러 관직에 있다가 1748년 경상도 영해부사를 거쳐 1749년 가을 제주목사로 내려오게 된다. 이듬해 극심하게 가뭄이 들자 그는 조정에서 받은 구호미 3천석으로 굶주린 도민들을 진휼하며 대동미를 3년간 면제시켜 주었다. 그의 기행가사에는 백성의 간고한 삶을 보고 큰 비탄에 빠지면서도 백성들에 대한 구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참조; 이 책에는 「瀛海奇聞」, 「耽羅記」, 「循海錄」, 「海山叢書」, 「탐라전문록」, 「橋譜」 등 6편의 글이 차례로 실려 있는데 해외 표류민을 인터뷰한 「탐라전문록」이 절반분량을 차지한다. 「영해기문」은 기존 제주관련기록을 주제별로 추려 편집한 것이고, 「탐라기」는 1732년 2월 23일부터 5박6일간 섬 전체를 일주한 여행기록이다. 「순해록」은 1732년 4월 12일부터 4박5일간 바닷가를 여행한 내용이고, 「해산잡지」는 그때그때 기록해둔 제주의 풍물과 풍광을 한데 모아 정리한 것이며, 「굴보」는 제주감굴을 15가지 종류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47) 정운경, 앞의 책, 정민 역, 2008, 188-189쪽.

48) 제주문화원이 1999년 발간한 『南遊錄·達告辭·耽羅別曲·訓民篇』 가운데, 『탐라별곡』은 양중해의 해제본과 함께 원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인용부분은 이 책의 54-55쪽이다.

## 〈표 1〉 정언유, 『탐라별곡』 (부분 발췌)

(상략)

어여쁠사 우리 백성  
衣食이 艱窘하니  
八陽足踏 겨우 하여  
짧은 호미 작은 보섭  
오뉴월 진력하여  
造物이 兇劇하고  
惡風과 심한 霖雨  
田畝를 돌아보면  
各穀을 둘러보면  
남은 이삭 주어내니  
무엇으로 公債 갚고  
거리거리 모든 飢民  
서러울 손 우리 性命  
流民圖 옮겨다가  
가죽옷 풀 戰笠이  
모밀 밥 橡實粥이  
歲歲에 國恩 입어  
請粟도 낮이 없고  
牧子 一族鮑作 구실  
船格의 貿易 무리  
滄溟이 限隔하고  
살 곳에 못 가기는  
슬프다 너의 艱苦

무삼 일로 偏苦하며  
흥미가 있을 손가  
薄田을 경작하니  
辛苦히 매 가꾸어  
西成을 바라더니  
天時도 그릇되어  
해해마다 孔極하니  
兵馬로 짓밟은 듯  
鐵鞭으로 짓찧는 듯  
빈 끼플 뿐이로다  
어찌구려 살아갈꼬  
駕轎 잡고 일는 말이  
나라에 달렸으니  
人君 계신데 알리고져  
이 무슨 衣冠이고  
그 무슨 음식일고  
羅鋪縣轉 虛實하니  
생계도 茫然하다  
이에서 더 설우며  
그 아니 難堪한가  
邦禁이 嚴截하니  
紇干山엔 새갓도다  
내 어이 모르리오

(하략)

이처럼 육지로 쉽게 나다닐 수 없는 어려움과 기근에서 오는 艱難, 역병과 같은 질병 등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사람들에게 민간신앙과 무속적인 마음에 빠져들게 만든 요인 가운데 하나였다. 사면이 거친 바다에 둘러싸여 자연재해가 유난히 많았던 제주도의 경우에는 ‘神堂’ 문화가 일찍부터 핵심적인 마을신앙으로 번성하였다.<sup>49)</sup> 하지만 1702년(숙

49)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24-25쪽; 제주의 각 마을마다 신당이 있었으며 줄여서 ‘堂’이라고 한다. 마을의 聖所로서 곳을 하는



중 28) 이형상 목사가 부임한 그 해 가을에 耽羅巡歷을 하면서 신당을 불태우고 훼손한 사찰만 각각 129곳과 5곳, 농부로 환속시킨 무속인수는 무려 285명이나 될 정도로 강력한 탄압을 받는 큰 위기도 있었다.<sup>50)</sup> 하지만 이러한 조선시대의 강력한 ‘崇儒抑佛’ 정책에도 불구하고, 신당 문화가 제주인 가슴 속에 면면히 이어져온 것은 가난하면서도 순박한 民草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크나큰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답했던 18세기 제주의 사회상은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여러 사서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하다. 제주읍성 밖에다 거대한 돌하르방들이 세워졌던 18세기는 기근과 질병에 신음해온 桎梏의 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다. 통계를 보면 1700년대 제주의 기근과 癘疫 발생 현황 가운데서, 전국에 비해 기근이 자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역의 발생건수가 매우 적은 것은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이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렇지만 제주도에 돌하르방이 세워지던 1754년을 전후하여 2차례나 疫疾 전염병인 천연두의 발병으로 인해서 많은 제주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볼 수 있다<표 2>.

<표 2> 1700년대 제주의 기근·여역 발생현황<sup>51)</sup>

연대 내용		1700	1710	1720	1730	1740	1750	1760	1770	1780	1790	합계
제주	기근	1	3	1	3	4	2	6	2	2	2	26
	여역	0	2	0	0	1	2	0	0	1	0	6
	합계	1	5	1	3	5	4	6	2	3	2	32
전국	여역	3	4	4	2	5	2	1	2	2	1	26

『조선왕조실록』 등의 사료를 살펴보면 여역의 피해가 적지 않았음을

‘本郷堂’과 가지 처서 나온 ‘가짓당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다.

50) 『탐라순력도』 39면 그림 「市浦拜恩」 기록의 일부, 燒火神堂一百二十九處 破毀寺刹五處 巫覡覲歸農二百八十五名; 하순애, 「18세기 초 제주인의 신앙생활과 신당파괴사건」,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333쪽.

51)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에서 여역과 역질 관련 내역을 직접 찾아서 분석한 자료이다.

알 수 있다. 1700년대 들어 첫 피해사례는 1714년이었다. ‘숙종 40년 갑오(1714, 강희 53)조’의 3월 24일 기록을 보면, 제주에 역질이 크게 유행해서 1천여 명이나 죽었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인 8월 16일에는 제주목사 邊是泰가 장계하여 올리기를, “본도에 여역이 크게 번져서 5천여 명이 죽었는데, 수백 첩의 약으로는 모두 구제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니, 임금이 醫司에 명하여 상당한 약물을 더 보내주라고 하였다.

1750년을 전후한 전국의 여역 발생과 피해사례를 보면 훨씬 더 심각하다. 1742년에 흥년이 들어 4월 팔도에 여역이 크게 유행했다. 이어 1749년 12월에는 각 도에 여역이 크게 유행해 死者가 5~60만 명이었다. 그리하여 서울과 각 도에서 국가차원의 厲祭를 지내주었다. ‘영조 26년 경오(1750, 건륭 15)조’에는 금년에 큰 역질이 퍼져서 사망한 백성이 거의 수십만에 이르러 들판에 드러난 骸骨이 텅굴고 있으며, 여염마을에서는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때가 어떤 시절입니까? 라며 참담한 심경을 전하고 있다. 바로 같은 해인 1750년 제주에도 여역이 발생하여 882명이나 사망하였다.

1752년에는 疹이 전국에 크게 유행하여 12월에 영조가 非常敕旨를 내렸으며, 1753년에도 또다시 진이 크게 성행하자 『東醫寶鑑』·『增補萬病回春』 등의 의서를 재차 간행하여 보급시켰다. 특히 ‘영조 33년 정축(1757, 건륭 22)조’에는 제주의 세 고을에 역질이 크게 번져 사망한 자가 5백여 명에 이르렀고, 경기·함경도에는 더욱 불같이 타올라서 죽은 자가 수없이 많았다고 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역 질환을 물리치기 위해 나라에서는 醫書를 발행하여 보급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이들의 원혼을 달래주려고 국가차원의 제사인 여제까지 올려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52)</sup>

52) 이형상 목사(재임기간 1702.7~1703.6)는 제주도내 신당파괴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1703년 천연두가 세 읍에 만연하자 神床을 설치하지 않고 사람마다 약을 복용케 하였다. 하지만 그의 후임자가 神祀를 크게 행하고 醫生을 파하여 다시 신당을 차리게 한 것에 대해서 몹시 노여워했다(이형상, 『南畝博物』, 이상규·오창명 역, 푸른 역사, 2009, 120-121쪽).

따라서 이 당시를 전후하여 육지지방에서는 힘없는 민중들이 염원을 한데모아 곳곳에 장승을 세우고, 그 힘으로 마을수호와 가정의 안녕을 지키려는 풍습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여겨진다. 이런 연유로 제주 또한 김몽규 목사가 관덕정과 운주당의 중수를 계기로 삼아, 읍성보호와 주민안녕을 위해 육지장승을 빼닮으면서도 독창적인 돌하르방을 성문 밖에 세운 것으로 충분히 사료된다고 하겠다.

### 3. 형태분석-돌하르방과 돌장승 비교

인류문화는 언제나 순수하고 고립적인 형태로만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미술사적 관점을 가지고 돌하르방의 제작 연원과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남방기원설·북방기원설·육지전래설·제주자생설의 경우 각각의 주장에 타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의 유사한 사례들만 가지고서는 보편성을 지니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1) 미술사적 관점 - 미메시스

우선 문헌기록대로 돌하르방이 김몽규 목사의 지시에 따라 세워진 것이라면, 제주 돌하르방과 같은 조형특성을 지닌 *mimesis*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sup>53)</sup> 기능면에 있어서는 육지 돌장승과 거의 동일하나 제작기법상의 형태면에서는 비슷한 만큼의 다른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돌장승 하나만 가지고서 육지전래설을 주장하기에는 객관성을 확

53) *mimesis*는 예술창작의 기본원리로서 그리스어로 模倣이나 再現을 일컫는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미메시스'를 '자연의 재현'이라고 말했는데, 플라톤에 의하면 모든 예술적 창조는 미메시스의 형태라는 것이다. 『브리태니커백과사전』(<http://www.britannica.co.kr>) 참조. 미메시스 이론과 관련해 발표한 논저로는 권혁성, 「아리스토텔레스에서의 미메시스와 예술」, 『미학』 제74집, 한국미학회, 2013.06; 정석현, 「아도르노 미메시스 개념의 의미」,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원준식,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이 있다.

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육지 돌장승을 기본으로 삼고 주변의 여러 문화예술적 조형요소들을 융합하여 탄생시킨 것이 바로 제주 돌하르방이라고 봐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최초 제안자인 김몽규 목사가 자신의 구상대로만 직접 조각상을 만들도록 한 게 아니라, 제작목적과 조각형태를 전해들은 석공들의 창작솜씨가 한데 결합하여 이뤄진 결과물이라는 점이기에 더욱 그렇다.

실제 김몽규 목사는 文臣처럼 유교사상에 투철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진취적인 武臣이었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제작자들과 공유하면서도 그들의 독창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는 제주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인 1733년에 해남현감을 지냈으며, 1747년 경상좌수사 부임에 이어 1748년부터 1751년까지는 한양도성을 지키는 전위대였던 경기도 화성의 남양부사를 역임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부임길에 조선시대 9大路인 영남대로와 호남대로(일명 삼남대로)를 두루 오가면서 문화적인 체험을 충분히 겪은 그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돌장승 이외에 그가 염두에 두었을 만한 석상으로는 전남 여수 鎭南館의 ‘石人’이나, 제주로 내려오는 중요한 길목이자 강진 兵營城 어귀에 있는 하고마을 虹橋 앞에 세워진 ‘병영성 홍교 벽수’를 일레로 들 수 있다. 또한 제주에서는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복신미륵’의 조각형태도 충분히 예술적으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먼저 여수석인의 경우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전라좌수영의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 당시에 왜적의 공격이 심하므로, 그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 높이 2m의 석인 7기를 제작하여 진나라의 용중석처럼 擬人化시켜 놓음으로써 적의 눈을 속여 승전의 길로 이끌었다고 전해온다.<sup>54)</sup>

이와 비슷한 일곱 용중에 관한 이야기는 천재 방랑시인 梅月堂 金時翊(1435~1493)이 관서지방인 평안도를 떠돌면서 지은 ‘七翁仲’이란 시

54) 여수시, 『여수시문화재도록』, 2001, 35쪽.

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저 언덕 위에 뻗쳐 선 일곱 웅중 (···) 강변에 우뚝 솟아 길이 섰구나. 당나라 황제는 제풀에 물러서고 수나라 병사들도 참패를 당했거니 (···) 우거진 풀대만이 아득히 펼쳐졌네.”<sup>55)</sup> 『新增東國輿地勝覽』 권52에는 이 칠웅중과 칠불사에 대한 일화를 엿볼 수가 있다.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성에 있는 칠불사의 창건은 乙支文德의 살수대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612년(영양왕



〈그림 8〉 여수석인, 전남 유형문화재 제33호, 높이 2m, 화강암

23)에 을지문덕 장군이 청천강 南岸에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칠 때, 7인의 승려가 옷을 입은 채 유유히 걸어 청천강을 건넜다. 이에 속은 수나라 대군이 일시에 강을 건너다 수심이 깊어 거의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싸움에서 크게 패한 수나라 군사가 물러간 후 일곱 승려의 신묘한 업적이 세상에 전해지자 이를 기리기 위해 성 밖에 절을 지었다. 이때 일곱 승려를 상징하는 七佛石像도 세워졌는데, 바로 이 사찰 앞에 서있는 7개의 돌기둥을 일컫는 것이다.

원래 여수석인은 여수시내에 7기가 세워졌다고 하지만 6기가 유실되어 없어지고, 현재 1기만이 2001년 4월 17일 국보 제304호로 승격된

55) 원문 詩는 다음과 같다. 岸上七翁仲 屢屢今幾年 慣看千古事 長立一江邊 唐帝親征返 隨兵敗績旋 山河渾不變 沒脛草連天; 김시습, 『금오신화에 쓰노라』, 류수·김주철 역, 보리, 2005, 37-38쪽. 이 책은 북한의 문예출판사에서 1990년 펴낸 『김시습 작품집』을 보리출판사에서 다시 펴낸 것이다.

여수 진남관의 앞뜰에 남아있다. 재료는 화강암이며 머리에 관모를 썼고,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은 기다란 도포자락 사이로笏을 들고 있다. 이 석인상은 口傳에 내려오는 임진왜란과 관련한 유물로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그림 8>. 따라서 김몽규 목사가 무신이었던 만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이러한 일화는 충분히 알만한 위치였다고 여겨진다.

전남 강진 병영성의 경우 종2품 무관인 兵馬節度使가 전라지역 병마를 통솔했던 중요한 요새로서 남해안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제주뱃길의 요충지였다. 이곳 병영성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홍교 앞 좌우에 나란히 세워진 벽수는 성을 수호하기 위해서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 전해오던 것이다. 불행히 1984년 도난당해 사진자료만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벽수를 새로 복제하여 세워 놓았다. 하고마을을 가로지르는 배진천의 拜箋閣 옆에 세워진 홍교는 약 300년 전 이곳 출신인 劉漢啓(1688~1794) 정승의 금의환향을 기념해 만든 것이라 전한다. 장승제를 지낸 유래는 없지만 마을사람들은 이곳 벽수에 입을 맞추면 소원성취한다고 해서 동네아낙네들의 祈子 정성이 깃들여 있다.<sup>56)</sup>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지정된 홍교는 유한계가 1730년(영조 6)에 崇祿大夫가 된 것을 기념하여 梁漢祖가 감독 준공했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18세기 전반에 건축된 것임을 알 수 있다.<sup>57)</sup> 그러기에 병영성 홍교 벽수 또한 거의 같은 시기에 만들어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 병영성 홍교 벽수는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며 文武石이라고도 불린다<그림 9>. 길 왼쪽편의 벽수가 武將이고 오른쪽은 文官이다. 무장은 甲冑를 착용하고 있으며, 머리에는 목까지 덮은 투구鉢을 썼고, 어깨를 덮은 肩甲에는 비늘을 세긴 흔적이 보인다. 두 손은 양쪽허리에 팔꿈치를 붙인 채로 오른손은 약간 위로 올리고, 왼손은 조금 내려 앞으로 뻗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오른 손에는 칼을 잡았으나 칼자루만

56) 『강진군마을사』 병영면 편, 강진군, 1991, 306-307쪽.

57)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병영성 홍교’ 참조. 여기서는 劉漢啓가 劉漢所로 소개되어 있다.





〈그림 9〉 강진 병영성 홍교 석수(왼쪽), 1976, 김두하 촬영, 『석수와 장승』 도판.  
칼라판 홍교 석수(가운데) 및 흑백판 정면사진(오른쪽), 『강진 병영성』 도판, 1984년  
도난 분실됨.

남고 칼날은 부러져 보이지 않는다. 오른쪽의 문관은 관모를 쓰고 도포를 입었으며, 두 손은 가슴 한가운데로 모은 자세를 하고 있다.<sup>58)</sup>

특히 강진 병영성은 제주를 오가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핵심길 목이었기에 김몽규 목사가 익히 알았거나 직접 살펴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육지를 왕래한 김몽규 목사의 입장에서 고찰해 보았다면, 실제 돌하르방을 조각한 석공들의 시각에서 미메시스를 찾는 일은 이와 달리 제주에서 만들어 세운 석상들임은 자명하다. 제주의 대표적인 돌조각 석상으로는 복신미륵, 동자석과 문인석, 신앙석 등을 들 수가 있지만, 그 규모나 형태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읍성과 이웃한 2기의 복신미륵일 것이다. 제주읍성 동문 옆의 고려시대 만수사 터에 세워진 동자복 복신미륵과 서문 근처 위치한 해륜사 터에 서있는 서자복 복신미륵은 돌하르방을 만드는 석공들에게는 충분히 눈여겨 볼만한 대상이었다고 사료된다<그림 10>.

물론 이 복신미륵은 기능면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강하지만 조각 형태면에서는 돌하르방과 공통적인 조형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머리에 모자의 표현이나 커다란 얼굴 모양, 상체를 강조하고 하체를 과감히 생략한 표현기법, 큰 받침대 등이 매우 비슷한 형태라는 점이다. 물론 구체적인 조형적 표현에 있어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지

58) 김두하, 앞의 책, 1995, 790-791쪽.



〈그림 10〉 동자복, 1914, 일본인 도리이엽서(왼쪽)  
서자복, 1950년대, 홍정표 촬영(오른쪽)

만, 신체비례와 조각기법 같은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돌하르방을 제작한 석공들에게 미메시스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여러 형태의 조형요소들이 미메시스 되어 돌하르방 제작과정에서 보다 더 창조적인 형태로 융합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및 제작목적에 밝히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비록 돌하르방이 ‘官’ 즉 목사의 주도하에 만들어졌기는 하지만 ‘民’ 즉 석공들인 제주사람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단지 육지 돌장승의 평범한 亞流가 아니라 청출어람의 새로운 예술적 경지를 창출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판단된다.

## 2)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분석

이제부터는 조형기법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게 돌하르방의 형태적인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제작시기를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돌하르방의 조형기법 즉 몸·얼굴 비례와 형태특징을 구체적으로





〈그림 11〉 제주읍성 동문 돌하르방(왼쪽), 1754, 225cm, 현  
제주대학교박물관 앞 위치. 남원 실상사 대장군(오른쪽), 1725, 253cm,  
남원 실상사 입구 위치.

고찰한 다음, 돌하르방과 형태적 親緣性은 물론이고 매우 비슷한 기능을 가진 육지 돌장승의 조형특성에 관해 살펴보고 돌하르방과 닮은 점 및 다른 점에 관하여 비교 분석해볼 것이다.

돌하르방의 가장 큰 형태적 특징은 얼굴과 모자, 팔 등의 상체를 크게 강조하고 하반신 표현은 과감하게 생략해 기단석을 받쳐서 어느 정도 威嚴을 드러내는 정도이다. 그 가운데 제일 과장시켜 조각한 얼굴 표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매우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다소 익살스럽지만 조금은 근엄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와 같은 몸과 얼굴에 대한 표현은 육지 돌장승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상체를 중시하고 하체를 과감히 생략하는 조형기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돌장승에는 모자와 손동작 부분이 거의 빠져 있거나 아예 생략된 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그림 11>.

더욱이 제주읍성 돌하르방 규모는 정의현성과 대정현성에 비해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성문지기로서의 위용을 갖추고 있으며 조형성도 매우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얼굴과 몸체의 크기는 물론 조각기법 또한 육지

돌장승에 못지않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전반적으로 몸·얼굴의 비례는 3~4등신으로 아주 짧은 편이지만, 오히려 얼굴 相好를 강조한 4등신 불상처럼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준다.<sup>59)</sup> 하반신에 비해 두상 부분이 크게 강조되는 4등신 석상은 남·여 7·8등신이라는 이상적인 인체비례에는 맞지 않지만, 석상의 크기가 높을 경우에는 보는 이의 시선이 밑에서 위를 향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의 위엄성을 갖추면서도 한결 친근함이 드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육지 돌장승 또한 돌하르방과 마찬가지로 미학적인 인체비례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얼굴과 모자, 수염 등의 상반신을 크게 강조하는 대신 손이나 하체표현 등은 과감하게 생략하는 조형기법을 채택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돌장승의 기본유형은 사람의 얼굴을 변형한 수호신상으로서 상징적 표현을 하고 몸체 하단의 가운데 부분에 장승 이름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굴표현으로 통방울눈과 주먹코, 빠져나온 송곳니나 앞니, 戰笠形 또는 官帽形 모자가 근본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이 사람의 모습을 빌면서도 왜곡과 과장을 통해 추구된 조형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볼 수가 있다. 그 하나는 도깨비나 사천왕 같은 수호신상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의 자화상적인 이미지이다. 이러한 두 유형은 생각한 바를 꾸밈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直情적인 것과 해학적인 것, 일종의 전형성을 제시하는 것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sup>60)</sup>

제주 돌하르방 47기 및 육지 돌장승 18기에 대한 몸·얼굴 비례분석

59) 일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4등신 불상으로는 서산마애삼존불의 협시보살, 경주 삼화령 석조미륵삼존불(일명 애기부처), 금동여래입상(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경주 남산 열암골 마애불상,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일명 은진미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서산마애삼존불, 삼화령 애기부처와 금동여래입상은 삼국 시대인 7세기 때 제작되고, 은진미륵 또한 고려전기 불상으로 968년(광종 19)부터 1006년(목종 9)까지 37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

60) 유흥준·이태호, 「미술사의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163쪽.

과 더불어, 특색 있는 돌하르방 20기 및 돌장승 9기를 선정하여 형태적 특징을 10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세분화시켜서 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닮은 類似性과 다른 差異性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돌장승의 경우 주로 돌하르방이 제작되기 전 세워진 것들로서 전북 부안 서문안 당산 上元周將軍과 下元唐將軍(1689), 부안 동문안 당산 상원주장군, 전남 나주 운흥사 상원주장군과 하원당장군(1719), 나주 불회사 하원당장군, 전북 남원 실상사 대장군(1725)과 상원주장군(1731), 남원 서천리 당산 진서대장군 등이다.<sup>61)</sup>

#### ① 닮은 점(유사성)

첫째, 모자는 대부분 모정이 뾰족한 병거지 형태를 쓰고 있다. 돌장승의 경우에는 가끔 관모를 착용한 것도 있다.

둘째, 눈은 크게 부릅뜬 통방울눈 모양을 하고 있다. 돌하르방과 돌장승 모두 눈망울에다 때로는 이중의 동심원을 양각하여 강조시키고 있다.

셋째, 코(콧구멍) 모양은 큼지막한 주먹코를 하고 있다. 툭 튀어나온 콧방울 밑에는 큰 콧구멍이 선명하게 음각돼 있다<그림 12~13>. 돌하르방의 경우 제주읍성 23기 모두가 콧구멍이 새겨져 있지만, 이들보다 작은 정의현성이나 대정현성의 것은 콧구멍이 새겨져 있지 않다. 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일부러 생략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읍성마다 제작 장인들이 각기 달라 소통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생긴 결과로 보인다. 돌장승에서도 전부 콧구멍이 새겨져 있으나, 초창기 부안 서문안과 동문안 당산의 돌장승들은 코 부분의 마모가 심하여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콧등의 선명한 주름살 표시는 제주읍성 돌하르방과 육지 돌장승에서 모두 나타나는 공통적인 조형요소로서, 이는 성문이나 왕궁, 사찰을 지키는 수문장으로서 맹수 같이 용맹스런 기상을 표출하기 위해 동물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귀 형태는 거의 대부분이 크거나 작은 일자형이다. 간혹 돌하

61)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79-155쪽 참조.





〈그림 12〉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서쪽 돌하르방(왼쪽) 제주대박물관 맨 앞 북쪽 돌하르방(오른쪽) 코 모양



〈그림 13〉 전라남도 나주 운흥사 상원주장군(왼쪽) 전북 남원 실상사 대장군(오른쪽) 코 모양

르방과 돌장승 모두 C자형 또는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입은 보통 일자형으로 음각하고 있다. 때로 양 끝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를 짓기도 하고, 약간 화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다. 두 볼은 약간 볼록하게 양각돼 있는데, 돌장

승보다는 돌하르방의 볼이 더 선명하고 두툼하게 표현된다.

여섯째, 등신 비례는 이상적인 인체비례와 달리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으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자와 얼굴, 긴 수염이나 손동작을 좀 과장해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라 하겠다. 대부분 실물보다 크게 제작돼 밑에서 위로 쳐다보는 시각구조이기 때문에, 상체를 크게 강조하는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과 함께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경주 삼화령 애기부처 같은 4등신 불상에서 보듯이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통해 위압적이고 괴기스러운 인상을 보완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기능은 돌하르방이나 돌장승 모두 음성과 사찰보호·산천비보·방역 기능 가운데서 한두 가지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제주 돌하르방의 경우에는 음성보호와 읍민의 안녕, 방역의 임무를 함께 띠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② 다른 점(차이성)

첫째, 손과 팔은 돌장승의 경우에 그 표현이 거의 없으나, 돌하르방에는 전체적으로 손과 팔이 새겨져 있다. 규모가 제일 큰 제주읍성 돌하르방은 세워진 위치에 따라 어깨를 위로 치켜들면서 왼손을 올리거나 반대로 내리는 등 매우 규칙적인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경우 이런 원칙이 점점 더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이마의 경우 돌하르방에는 白毫 표현이 전혀 없지만, 돌장승에서는 대부분 백호가 이마 한가운데나 아래쪽 미간 사이에 뚜렷하게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향은 사찰 앞에 세워진 호법장승에서 주로 볼 수 있는데, 형태면에 있어서 불교적인 색채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치아 역시 돌하르방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비해, 돌장승에는 대부분 반쯤 입술을 벌려 드러난 치아와 함께 양끝에 팔자형 뼈

드렁니가 큼지막하게 빠져나와 있다. 이는 아주 사납고 험상궂은 얼굴 표정을 통해서 못된 악귀를 물리치려는 辟邪進慶의 의도가 하나의 표현요소로서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수염은 돌하르방에는 치아와 마찬가지로 전혀 표현하고 있지 않다. 돌장승에서는 짧은 콧수염이나 길쭉한 채수염, 덩수룩한 구레나룻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여장승인 경우에도 더러 수염이 새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체형(성별)은 돌하르방은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에 가까운 몸체를 조각하고 있으며 성별의 구별이 없다. 돌장승의 경우 길쭉한 장방형의 사각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며, 돌하르방과는 달리 성별을 나누어 명칭을 붙이고 보통 한 짝을 이루어 세우고 있다.

여섯째, 기단석(정낭 흙)의 경우 원래부터 돌하르방에는 기단이 만들어 있었지만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분실된 경우가 많다. 특히 제주읍성 돌하르방 기단에는 정낭형태의 흙이 깊게 파여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는 마소나 마차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정낭을 걸쳤던 자리로 판단된다. 일부 민속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정낭은 ‘정주목’이라고 하여 신성시 했으므로, 돌하르방은 전래되어 오지 않고 제주에서 자생했다는 제주자생설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제주읍성 돌하르방의 기단에 정낭 흙을 만들지 않고 일부 기단에서만 보인다는 점에서 제주자생설의 이론적 명분으로 작용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돌장승은 대체로 기단석 없이 땅속에 묻혀 있으나, 남원 실상사 대장군이나 상원주장군과 같이 커다란 기단석 위에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일곱째, 명칭 즉 銘文은 돌하르방에는 전혀 새겨 있지 않으나, 돌장승의 경우는 대부분 정면 하단에 명칭을 크게 음각하고 있다. 보통 상원주장군이나 하원당장군, 南正重과 火正黎처럼 중국의 고대국가 장수 명칭이거나 고문헌의 명문을 따오기도 하지만, 진서대장군·방어대장군·토지대장군처럼 방위나 일반적인 명칭을 새기기도 한다.

여덟째, 祭儀는 돌하르방의 경우에 행해지지 않았으며, 돌장승의 경우는 당산제나 장승제 형식으로 제의식을 거행하는 곳이 많았으나 지



금은 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인들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기도 했지만 제례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거의 사라졌다<그림 14>.



〈그림 14〉 나주 운흥사 상원주장군과 아낙네, 『문화재대관』(왼쪽).  
부안 서문안 당산 돌장승 제례의식, 『한국무속도록』(오른쪽)

위와 같은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표현 양식적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시 요약하여 정리해보면 <표 3>처럼 조형특성을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적 형태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큰 틀에서 조각형태가 유사한 것은 돌하르방이 제작시기가 앞선 돌장승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세부적인 표현에서 차이성이 드러나는 것은 제작하는 주체가 전혀 다른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돌장승의 경우 경제력이 커진 마을사람들이나 사찰스님과 불자중심으로 세워졌다면, 돌하르방은 지방 목민관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신앙적이거나 괴기스러운 형태표현이 절제되고 생략되었다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고 사료된다. 그 대신에 얼굴표정이나 손과 어깨동작을 근엄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생동감이 훨씬 살아나는 시각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 돌하르방은 육지 돌장승을 단순히 미메시스한 작품이 아닌 새로운 예술의 경지를 개척했다고 할 것이다.

〈표 3〉 돌하르방과 돌장승의 조형형태 비교<sup>62)</sup>

구분		돌 하 르 방	돌 장 승
닮은점	모자	•대부분 모정이 뾰족한 병거지 형태	•병거지 형태, 가끔 관모 착용
	눈	•부릅뜬 통방울 눈 모양	•부릅뜬 통방울 눈 모양
	코 (콧구멍)	•제주읍성 23기 모두 콧구멍 있음 •정의현성과 대정현성 각 12기 모두 콧구멍 없음	•콧구멍 새겨져 있음
	귀	•대부분 크거나 작은 일자형 •C자형이나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대부분 크거나 작은 일자형 •C자형이나 3자형 모양을 취하는 경우도 있음
	입	•보통 일자형, 때로 양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 짓기도 하고 화가 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음	•보통 일자형, 때로 양끝 부분이 살짝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와 미소 짓기도 하고 화가 난 듯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음
	비례 (등신)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 이내로 매우 짧음	•몸·얼굴 비례가 모두 3~4등신 이내로 매우 짧음
	기능	•읍성보호, 읍민 안녕, 방역 임무	•읍성과 사찰보호, 방역기능
다른점	손(팔)	•팔과 손이 새겨져 있음	•팔이나 손 표현이 거의 없음
	이마 (백호)	•백호 표현 없음, 음각선 주름	•이마 한가운데나 아래쪽 미간 사이 또렷하게 백호 표현
	치아	•표현 없음	•팔자형 빠드렁니
	수염	•표현 없음	•짧은 수염, 길쭉한 채수염, 덩수룩한 구레나룻을 다채롭게 표현
	체형 (성별)	•원형이나 타원형 •성별 없고, 한 쌍을 이룸	•길쭉한 장방형의 사각 형태 •성별 있고, 한 쌍을 이룸
	기단석	•있음	•거의 대부분 없음
	명칭 (명문)	•없음	•정면 하단, 크게 음각함
	제의	•없음	•당산제 또는 장승제 (현재 단절됨)

62) 황시권, 앞의 논문, 2015, 156쪽.



### Ⅲ.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의 제작시기

제주읍성 돌하르방과는 달리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각 성문 밖에 세운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규모 및 형태면에서 작아지고 조형양식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즉, 각 성문마다 8기에서 4기씩만 세워지며 얼굴의 시선방향, 양손의 위치, 어깨 치켜 올리기 자세 등의 균형이 깨지면서 단순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제주의 3읍성 돌하르방이 김몽규 목사의 직접적인 지시로 동시에 세워지지 않았음을 오히려 방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돌하르방의 양식적 특징과 조성시기에 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연구자로는 정성권이 있다. 세 읍성 돌하르방 가운데 조각수법이나 장식물 표현, 같은 지역 내에서의 현격한 조각능력 차이를 보이는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가장 먼저 건립된 후 순차적으로 정의현성과 제주읍성에 조성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이는 100년 가까이 몽골이 제주도를 관할한 사실을 크게 반영한 것으로, 몽골 석인상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그 또한 세부적인 조각 형태가 서로 달라 훈출로와 돌하르방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원나라 말기 제주에 피난궁궐을 짓기 위해 석공들을 데리고 왔던 역사적인 사실에 미루어, 이들이 체류하며 남긴 석인상 가운데 5기 정도가 대정현성의 돌하르방 제작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유추의 근거로는 우리나라 장승에는 나타나지 않는 허리띠 장식이 발견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으며, 돌하르방의 건립 순서 또한 몽골의 석공이 남긴 석상이 대정현성 앞으로 옮겨져 일부 쓰였고, 제주 풍토와 쓰임에 알맞게 나머지 돌하르방들을 변형시켜 만들어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정의현성과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조성되었을 것이라 추론하고 있다.<sup>63)</sup>

하지만 이러한 가설은 몽골의 석공들이 제주에서 제작한 몇 개의 석

63)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사학지』 제34집, 단국대출판부, 2001, 78-84쪽.



〈그림 15〉 제주읍성 동문 밖 돌하르방(왼쪽), 정의현성 동문 밖 돌하르방(가운데), 대정현성 돌하르방들(오른쪽), 1914,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대정현성만 원래 위치에서 옮겨져 있다.

상이 400여년이 지난 뒤 화려하게 부활해 제주 돌문화의 꽃을 피웠다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제주읍성 돌하르방에 대한 문헌기록은 물론 각 고을마다 어느 정도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보건대, 합리적인 典據로 작용하기에는 적잖이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5>. 또한 대정현성의 경우 1418년(태종 18) 처음 축조할 때 제주읍성이나 정의현성과 달리 동서남북 4문이 만들어졌다. 북문은 나중에 폐쇄시켜 3문만 남아 있다는 문헌기록으로 미루어, 대정현성 돌하르방이 12기만 전해온다는 점에서 수치상으로도 맞지 않다. 따라서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축성 초기가 아니라 3문으로 성문이 축소된 이후에 만들어졌음이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18세기 제주지역의 재정에 관한 문헌기록 중에 제주순무어사 朴天衡이 지어올린 서계를 보면 제주의 平役庫는 1738년(영조 14) 제주어사로 파견된 李度遠에 의해 처음 창설된 것을 알 수 있다.<sup>64)</sup> 제주의 民庫 가운데 대표적인 평역고는 軍役을 진 자들에게 면제해 주고 대신 쌀을 내는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했으며, 각 읍과 현의 군인 급여는 물론 중앙의 공물헌납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sup>65)</sup> 특히 田結稅는 중앙정부에서

64) 『書啓輯錄』 濟州巡撫御史 朴天衡書啓; 서계집록은 조선후기 정조 연간에 암행어사들이 지어올린 서계를 모아 엮은 정책서로, 불분권 9책의 필사본이다. 편자 및 간행연대 미상이며 1777년(정조 1)부터 1794년까지의 서계가 실려 있다. 濟州巡撫御史 박천형의 서계는 제4책에 실려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65) 李源作, 『耽羅錄』 중 擬減役均稅議 『탐라문화총서 3』,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989, 190쪽.

가장 중요시한 수세항목이었지만 제주에서 거둬들인 전결세는 그 양이 적어 중앙에 상납하지 않고 제주소재 관청의 재정에 충당되었다.<sup>66)</sup> 이 밖에 중앙의 관리파견이나 목사의 순력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供星穀이나 표류인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供彼庫 제도를 만들어 각 읍현의 재정에 충당했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이러한 재정운영 형편으로 볼 때 제주읍성의 경우는 관청건물의 중 수과정에서 돌하르방의 제작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지만, 정의현과 대정현성에서는 제작동기가 크게 없었기에 각 지역별로 재정에 맞게 돌하르방의 규모나 수량, 조각형태가 조금씩 달리 나타나지 않았는가 한다. 돌장승의 경우는 18~19세기에 걸쳐 2백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형태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반해, 돌하르방은 일시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읍성마다 조형적인 차이를 내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3읍성의 재정이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돌하르방이 세워진 이후 제주에 머물고 나서 남긴 石北 申光洙(1712~1775)의 『耽羅錄』을 통해서도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sup>68)</sup>

신광수는 1764년 52세에 의금부의 금부도사 金吾郎으로서 제주에 부임하였으나, 풍우로 뱃길이 막혀 바로 돌아가지 못하고 45일 더 체류하게 되었다. 그는 이때의 모진 여정을 100여수의 시로 남겼는데, 당시의 제주 생활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69)</sup> 특히 이 가운데서 「又憫荒」이란 시 속에는 “三縣三周供 荒年久客難”라는 구절이 나온다.<sup>70)</sup> 이것은 그가

66) 『濟州邑誌』 田稅. 이 책은 편자와 편년 미상의 제주·대정·정의읍지로, 1780년부터 1782년경까지 작성된 「제주읍지」·「대정현지」·「정의현지」를 저본 삼아 펴낸 後寫本으로 보이는 책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67) 『서계집록』, 앞의 책; 제주목에서는 使客支應米를 거두어들였으나 정의현과 대정현은 달리 비용을 징수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될 때마다 각 현에서 번갈아가며 경비를 댔다.

68) 이 『탐라록』은 1764년에 지은 것으로서, 『석북집』에 실려 있다 이 문집은 1975년 『崇文聯芳集』 속에 재수록되었다(『송문연방집』, 탐구당, 1975, 해제 참조).

69) 부영근, 「석북 신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영주어문연구회, 2004, 53쪽.

70) 『석북집』 권7, 『송문연방집』, 앞의 책, 1975, 154쪽; 이 서책은 신광수의 시문

제주목관아에 체류할 때 3현에서 세 번씩 돌아가며 식사를 대주고 있어, 흥년에 오래 머물기 몹시 난처한 처지를 시로 표현한 것이다.

이외에 비록 김몽규 제주목사가 직접 제작지시와 재정지원을 했거나 그렇지 않았더라도 정의현감 呂遇周는 1751년 7월부터 1754년 2월까지 그리고 대정현감 李熙春은 1751년 7월부터 1754년 5월까지 길게 부임한 것으로 미뤄볼 때, 서로 간에 돌하르방 제작과 설치에 관한 상호교감은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기에 정의현과 대정현성 돌하르방은 제주읍성 돌하르방이 세워질 때나 그 직후에 만들어 세운 것이라 판단함이 여러 정황상 옳다고 하겠다.

#### IV. 맺음말

고유한 제주 돌문화의 상징으로서 자리 매김된 돌하르방의 제작시기에 관해 문헌분석과 기능분석, 형태분석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실제 돌하르방이 제작되었다는 시기와는 달리,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160여년 지난 후에야 나타남으로 인해서 여러 주장과 학설이 난무하여 돌하르방의 위상 정립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번 새롭게 시도한 문헌분석에 있어서도 역사적 자료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관계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사료발굴과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 늦기 전에 어딘가 혹시 있을지 모를 사료발굴을 위한 학계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꾸준히 펼쳐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돌하르방의 문헌기록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보다 자세히 밝혀내기 위해 돌하르방의 기능과 형태적 특성을 국내외의 유사한 조각상들과 병행하여 다양하게 비교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로 문헌기록의 명확성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

---

집으로 총 16권 8책이며, 1906년(광무 10) 그의 후손 申觀休가 목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었다고 생각된다.

제주 돌하르방의 활발한 학문적인 연구와 더불어 꼭 필요한 과제는 돌하르방의 온전한 보존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성격을 지닌 돌장승의 경우 이미 18기가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 이에 비해서 돌하르방은 현존하는 47기 가운데 45기만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상태다. 따라서 현재 제외돼 있는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기를 문화재로 추가 지정하는 동시에 국가문화재로 승격을 위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자료집

- 『강진군마을사』 병영면 편, 강진군, 1991.
- 『南遊錄·達告辭·耽羅別曲·訓民篇』, 제주문화원, 1999.
- 『南宦博物』, 이형상, 이상규·오창명 역, 푸른 역사, 2009.
- 『문화재대관』 중요민속자료 1. 신앙·생활자료, 문화재청, 2005.
- 『書啓輯錄』
- 『石北集』 권7.
- 『崇文聯芳集』, 탐구당, 1975.
- 『승정원일기』
- 『신증동국여지승람』
- 『심재집』, 제주문화사, 1990.
- 『여수시 문화재도록』, 여수시·여수지역사회연구소, 2001.
- 『(역주)증보탐라지』, 답수계 편, 제주문화원, 2005.
- 『역주탐라지』, 이원진, 김찬흡 외 역, 푸른 역사, 2007.
- 『(역주)탐라지초본』 상하, 이원조, 제주교육박물관, 2007-8.
- 『延州』 제2호, 연주현씨 제주도친족회, 1986.
- 『延州玄氏世譜』 2000년 庚辰譜, 2001.
- 『제주읍지』
- 『조선왕조실록』
- 『知瀛錄』, 이익태, 김익수 역, 제주문화원, 2010.
- 『탐라견문록, 바다 밖의 넓은 세상』, 정운경, 정민 역, 휴머니스트, 2008.
- 『탐라록』, 이원조,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탐라문헌집』 교육자료 29호,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탐라순력도연구회, 2000.
- 디지털서귀포시문화대전, 서귀포시 <http://seogwipo.grandculture.net>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시 <http://jeju.grandculture.net>
- 한국고전종합 데이터베이스, 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people.aks.ac.kr>

## 2. 논문 및 저서

가종수·기무라 시게노부, 『한국 석상의 원류를 찾아서』, 북 코리아, 2011.

김동전, 「심재 김석익의 역사저술과 역사인식」, 『구한말 한 지식인의 일생-심재 김석익』, 국립제주박물관, 2004.

김두하, 『벽수와 장승(수정증보판)』, 집문당, 1995.

김두하, 『장승과 벽수』, 대원사, 2011.

김병모, 『김병모의 고고학여행 1·2』, 고래실, 2006.

김석익, 『제주속의 탐라-심재집』, 오문복 외 역, 보고사, 2011.

김시습, 『금오신화에 쓰노라』, 류수·김주철 역, 보리, 2005.

김영돈, 『제주민의 삶과 문화』, 제주문화, 1993.

김유정, 「돌하르방 북방·남방 기원설에 대한 재론」, 『탐라문화』 제31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7.

김정선, 「옹중석: 돌하르방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33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김태곤, 『한국민간신앙연구』, 집문당, 1983.

데 바이에르, 『몽골 석인상의 연구』, 박원길 역, 혜안, 1994.

무경(武瓊), 『베트남의 신화와 전설』, 박희병 역, 돌베개, 2000.

문무병, 『제주도 본향당 신앙과 본풀이』, 민속원, 2008.

변경봉, 『변경봉문집』, 허남춘·김병국·김새미오 역, 탐라문화연구소, 2010.

부영근, 「석북 영광수의 『탐라록』 고찰」, 『영주어문』 제8집, 영주어문연구회, 2004.

아카마쓰 지조·아키바 다카시, 『조선무속의 연구 상·하』, 심우성 역, 동문선, 1991.

안길모, 『불교와 세시풍속』, 명상, 1993.

원준식, 「아도르노의 미메시스론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위엔케[袁珂], 『중국신화전설 2』, 전인초·김선자 역, 민음사, 1999.
-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관』, 창비, 2012.
- 유홍준·이태호, 「미술사 시각에서 본 장승」, 『장승』, 열화당, 1988.
- 이강희, 『탐라직방설』, 현행복 역, 각, 2013.
- 이종철, 『한국민속신앙의 탐구』, 민속원, 2009.
- 이즈미 세이이치[泉靖一], 『濟州島』, 홍성목 역, 제주시우당도서관, 1999.
- 정성권, 「제주도 돌하르방에 관한 연구: 양식적 특징 및 조성시기를 중심으로」, 『사학지』 제34권, 2001.
- 정승모, 「돌하르방과 타지역 석상 비교」, 『제주의 수문장 돌하르방』, 제주돌문화 공원, 2007.
- 조성산, 「이강희의 『탐라직방설』과 제주도」, 『다산학』 12호, 2008.
- 주강현,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한겨레신문사, 2004.
- 주채혁, 「제주도 돌하르방 연구의 몇가지 문제점; 그 명칭과 개념정의 및 존재시기; 동몽골 다리강가 훈출로와 관련하여」, 『청대사림』 6, 청주대사학회, 1994.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
- 현용준, 『제주도 무속과 그 주변』, 집문당, 2002.
- 황시권, 「제주 돌하르방의 종합적 연구」,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황충기, 『한국학사전』, 국학자료원, 2002.

ABSTRACT

## A Study on the Production Time of Dolhareubang(Totem pole) in Jeju Island

Hwang, Si-Kwon \*

Dolhareubang, the symbolic icon of Jeju Island, was built by Jeju Minister Kim Mong-Kyu(金夢煒) in 1754. 48 Dolhareubangs were made in Jeju 3 castles during the Chosun Dynasty. Today, 23 (1 lost) among 24 from Jeju castle, 12 from Jeongui castle, 12 from Daejeong castle, total 47 are passed down to present. In the year of 1971, 45 of them have been designa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lk materials No.2 ; 2 that were transferred into the entrance of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Seoul during mid 1960s were excluded.

This paper studies Dolhareubang which represents the innate characteristics of Jeju. For this study, multiple forms of research was made like literature research, functional analysis and form analysis related with art historical origin, production time and molding characteristics of Dolhareubang. The first literature record of Dolhareubang had problem of credibility because it was found 160 years later in 1918 than actual time which Dolhareubang was first made. Literature research was made for the investigation that this record has validity. Also, by consideration of purpose based on establishment period and analytical shape comparison to Korean

---

\* Myongji University, Ph.D. in Art History

Traditional Stone Totem pole of the land, production time of Dolharubang will be clearly represented.

Key-words: Dolhareubang, Korean Traditional Totem pole, ONGJUNGSEOK,  
Kim Mong-Kyu, Kim Seok-Ik

논문투고일: 2019.05.10.

심사완료일: 2019.05.27.

게재확정일: 2019.06.04.

